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9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신 것도 참 의문스럽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집안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도 행실도 참 미숙하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거나 꿈을 꾸고 잘난척하는 등은 참 철부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생도 모르고 자란 철부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급으로 보내셨다. 보내는 방법도 부자 족장의 아들로 거창하게 간 것이 아니라 버거벗겨 손발이 묶인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요셉을 애급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까지 갔지만 애급의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애급과 주변 나라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큰 인물이 된다. 인격도 신앙도 부족했던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롭고 완전하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가 많고 문제 많은 야곱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철부지 요셉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고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막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셨다. 올 한 해 동안도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기를 넘어가는 사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1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가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막상 넘어가야 할 일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넘어가야 할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넘어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10절).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던 나를 넘어간 것을 말한다. 바울의 인생은, 나를 넘어가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의 전반전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넘어가서 새 이름으로 산 인생 후반전의 삶으로 구분된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10절). 나를 거듭나기 이전의 나 자신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끝난다고 여겼다. 반대로 내가 승승장구하면 교만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 나를 잃게 하였다.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삶으로 변화받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달라진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끝으로, '자기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라는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10절). 이 말씀은 바울의 핵심적인 고백이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행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기를 넘어가는 사람'의 것이다. 인생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맞은 새해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9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도 큰 기쁨을 주신다. 바울 사도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칠 수 없었다.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혔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그의 동료 실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났다. 간수는 자다가 놀라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했다. 이때 바울은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였다.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였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빌립보 성의 감옥을 맡은 간수와 그 가족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만족시킨다. 이 기쁨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하며, 이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영혼의 고향』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2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한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을까? 인간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회귀 본능은 태어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회귀 본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온다. 바로 야곱이다. 그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이며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낳았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땅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야곱은 죽기 전 자신의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창47:29~30)을 남겨 고향으로 갔지만 이것은 단순한 회귀 본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단순한 고향의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간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 있듯이, 사람에게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기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혼의 고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흠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창2:7).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과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누신다.

인간은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듯이, 또한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샤르트르는 생전에 누구보다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 있는가?"라고 부르짖으며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다고 한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혼의 고향을 준비해야 한다. 전도자는 말한다.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12:7).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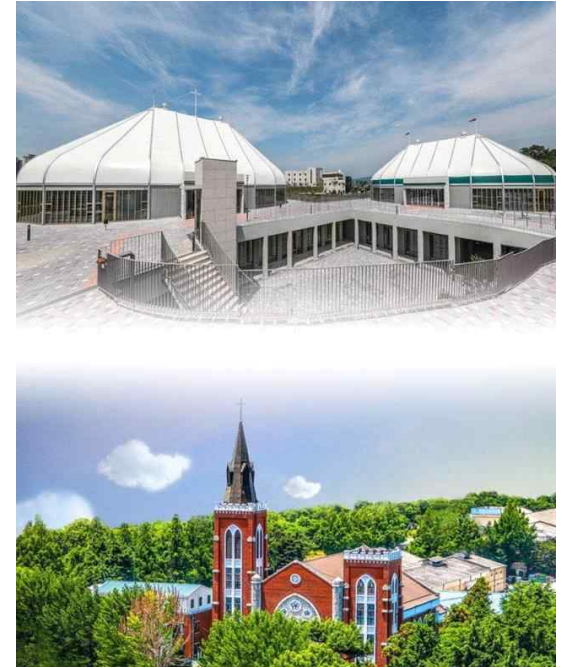
서구 문명의 요람 아테네에 선포된 복음

신약 시대에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 또는 ‘헬라’로 불렀다. 당시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지만, 아테네는 고대 유명한 도시로 명성이 있었다.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다. 아테네는 페르시아(바사) 다리오왕의 침략을 마라톤 전투에서 막아냈고(주전 490년), 그후 아하수에로왕의 침략으로 잠시 함락되었으나 살라미 해전 등을 통해 다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페리클레스(주전 495~429년)가 통치하는 동안 정치적, 문화적 황금기를 누렸으며, 이때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다(주전 43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은 ‘처녀의 집’이라는 뜻으로, 제우스의 딸 아테나를 기념하는 신전이다.

아크로폴리스 전망대에서 북동쪽으로 리카비토스 언덕이, 동쪽으로 제우스 신전이 있다. 남쪽 입구 기슭에는 지금도 사용하는 헤로데스 아트쿠스 극장과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어 헬라 문화의 단면을 보여 준다. 남쪽에 있는 필로파포스 언덕 공원 길을 오르면 왼쪽에 소크라테스 감옥으로 알려진 장소가 있고, 오른쪽에 고대 민주주의 회의가 열리던 프닉스 광장이 있다. 북쪽으로는 헬라 시대의 아고라와 로마 시대의 포룸이 있다. 자유 토론이 가능했던 아고라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헬라 철학(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등장하면서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요람이 되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냐에서의 박해를 피해 아테네에 도착했다. 아고라에 가득한 우상을 보며 의문을 품고 길리의 복음을 전했다. 새로운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던 철학자들은 아레오바고(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중간에 있는 언덕)로 바울을 데려갔다(행 17:16~19).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제우스 아들)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유력한 원로와 재판장이 모여 역사, 철학, 종교 등을 토론하던 곳이다. 그때 바울이 했던 설교가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다. 군대 우상(귀신)으로 가득 찬 아테네, 그중 군장이 되는 아레스의 동산에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곧바로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400년간 튀르키예의 통치와 박해를 겪으며 복음의 씨앗이 강한 신앙으로 자라나 아테네는 그리스 경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